

# 후버의 습격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여주시 울촌면 조화리 일대에 흑비가 내려 건물과 차량, 농작물 등이 검은 분진으로 오염됐다. (여주시 울촌면사무소, 김용운(울촌면 조화리)씨 제공)

## 울촌면 조화리 등에 30분간 내려 ... 쇳가루·미세 모래 등 포함

### 인근에 산단·광양제철 등 공장 밀집, 원인 파악 나서

여주시 한 농촌마을에 갑자기 흑비(黑雨·검은 비)가 내려 관계 당국이 원인규명에 나섰다. 주민들은 인근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한 분진 때문에 건강·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정확한 진상 파악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흑비가 내린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여주시는 지난 11일 오후 8시께 여주시 울촌면 조화리 일대에 30여분간 '흑비'가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조화리에는 848세대, 1902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날 내린 비는 검은색 미세 모래, 쇳가루 분진 등이 섞이면서 이 일대 주차된 차량 100여대와 주택, 옥수수, 고추 등 농작물에 검게 쌓였다. 주민 박중우(46)씨는 "승용차를 타고가다 처음 보는 흑비에 놀라 파출소

에 신고 했다"면서 "승용차 유리창이 검은 색으로 코팅이 되는 듯한 으스스한 느낌에 움찔했다"고 했다.

일부 주민들은 해당 지역에 화력발전소, 조선소 등이 입주한 울촌 제1산업 단지에서 1~3km 이내에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일대 업체들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 빗물에 섞여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차량 등에 쌓인 분진이 자석에 붙는 점 등으로 미뤄 강한 압력으로 철판에 모래를 뿌려 녹을 제거하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진이라는 게 주민들 주장이다.

전날 여수에서 평년 수준(풍속 4m/s 이하)의 약한 동풍이 불었던 점도 분진이 산단 오른쪽에 위치한 마을로 날아갔을 가능성이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진상 파악과 함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조사도 요구하고 있다.

김준태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년여간 이 일대는 흑비가 지속적으로 내렸다"면서 "지하수나 토양 오염 등이 우려되고 농촌 마을인데도 호흡기 질환 환자가 많

이 발생하는 등 주민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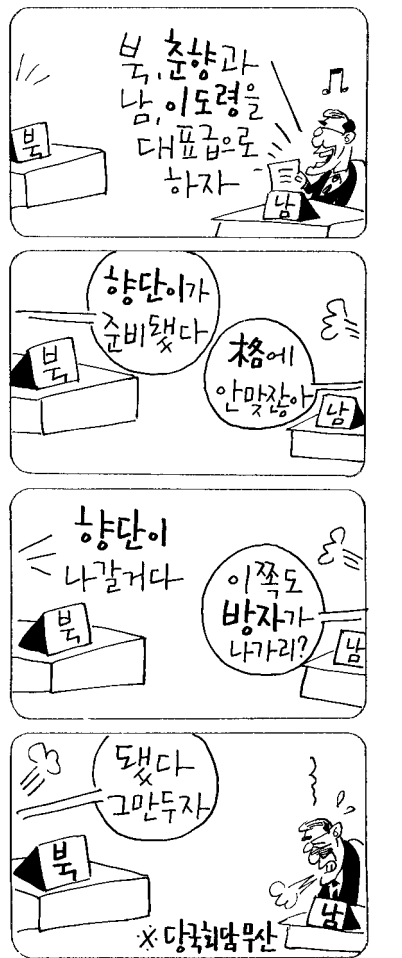
여주시와 경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전남도 등부출장소 등은 이날 오후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13일부터 진상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이들은 현장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분진 발생 원인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수에는 자동차 감판 등을 생산하는 공장도 조선소가 울촌 산단에 입주해 있고, 인근 광양에는 쇠·돌·석탄 가루 등이 발생하는 광양제철 등 다양한 산업체가 가동중"이라며 "원인 파악과 함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산업단지 공장 내 설치된 분진·집진시설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수=김정희기자 chkim@kwangju.co.kr

## 나원침 (8837) 김장두



### 탈린트 임영규 또 무전취식

1980년대 인기 탈린트로 활동한 임영규(57)씨가 무전취식한 혐의로 경찰에게 불검했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고 풀려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서울 서초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채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MBC 공채 탈린트로 데뷔한 임씨는 2007년 술값 83만 원을 내지 않아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연행뉴스

### 여탕에선 목욕바구니 속 열쇠 조심

여탕에서 목욕바구니 속 열쇠를 조심해야 한다는 주의가 제기됐다. 목욕바구니 속 열쇠를 빼내 손님 옷장에서 돈을 훔친 40대 여성이 경찰서 행.

○13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유모(여·43)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목욕탕에서 박모(여·49)씨의 옷장 속 지갑에서 현금 23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총 6회에 걸쳐 290여 만원을 훔친 혐의.

○박씨는 목욕바구니 속에 열쇠를 넣어두고 목욕하는 사람을 골랐는데, 경찰은 "공중시설에서 소지품 간수를 잘해야 한다"고 당부.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어느 40대 목사의 죽음

### 입양 딸 상습성폭행 혐의 경찰 체포 앞뒀

입양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받은 40대 목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안모(46)씨가 지난 8일 정오께 곡성군 오곡면의 한 모텔에서 숨져 있는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 곡성경찰청에 신고했다. 모텔 업주 이모(62)는 "안씨는 전날 오후 5시께 혼자 왔고, 퇴실

때까지 나오지 않아 객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파란 자동차 부동액이 옆에 있었고 구토를 한 채 안씨가 쓰러져 있었다"고 경찰청에 진술했다.

순천 한 교회 목사인 안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입양 딸을 수년째 상습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 받은 뒤 피해자 조사를 끝낸 뒤 안씨에 대한 사전 체포영장을 신청하려다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현재 안씨의 딸은 자살 고위험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음란·욕설전화 시달리는 114 안내원의 애환

### 수화기 들면 "뽀뽀하자" ... 심야엔 "한 번 자자"

#경력 8년차인 114 상담원 A(여·39)씨는 수화기 너머로 술 취한 목소리가 들리던 겁니다.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입은 게 바지나 치마냐", "뽀뽀하자"는 등 성희롱을 일삼는 남자가 있기 때문이다.

마음 같아선 고소를 하고 싶지만, 몇 년 전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남성이 상담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협박했다는 얘기를 들은 탓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

'감정노동자'(타인의 감정을 고조시키려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노동자)인 114 상담원이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K의 자회사인 ktcs에 따르면 광주 지역에는 200여 명의 114 상담원이 있고, 대부분 20대~40대 후반의 여성들로 평균 2개월

수화기 들면 "뽀뽀하자" ... 심야엔 "한 번 자자" ... 술취한 목소리엔 컴퓨터 신상 알아내 협박할까봐 고소할 엄두도 못내 회사차원 대응책 마련을

지역의 상담원에게까지 폭언과 성적 농담 등을 일삼는 사람도 있다.

상담원들은 이 같은 '보이지 않는 폭력'에 매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음란 전화가 걸려오는 데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라는 게 상담원들의 말이다. 114 상담원 B(여·41)씨는 "(성희롱) 전화를 받으면, 평범한 전화를 받을 때도 스트레스가 쌓일 정도"라고 전했다.

ktcs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자주 통화하는 상담원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소·고발을 해야해 신상 노출의 위험이 있었다"고 말했다. ktcs 측은 차후 개성 성폭력법 시행으로 회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 "화목하지 못한 가정 때문에..." 부친살해 고교생 '선처'

### 음주운전 트럭 고속도로서 전복

광주지법, 징역 선고

법원이 경찰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에 대해 성장환경 등을 고려, 선처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12일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17·고2)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재판부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종종 욕설을 하는 등 이군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한차례 휘두른 흉기에 아버지가 불온하게 사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경찰에 자수한 것도 집행유예 사유로 들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2일 오전 8시20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장성군 북이면 백암사C 인근에서 서모(58)씨가 몰던 1t 트럭이 커브길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쳐 전복됐다.

서씨는 경찰에서 "전날 밤 술을 마신 뒤 술이 덜 깬 상태에서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씨는 지난 2월 음주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성가족부 인정**

2013년도 "가정폭력상담원" 교육

<광주광역시 북구청 지정 교육기관 : 08-1>

■ 교육일시(총100시간)  
▶ 2013년 6월 17일(월) 개강 매주 월, 화, 목, 금 오후 6:00~

■ 모집대상 <각 항에서 1개만 해당되면 가능>

-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 4 이주 노동자 및 외국인 관련 단체 및 시설(외국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5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장애인보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수강료 : 24만원  
※ 계좌 : 063-107-581656(광주은행) 예금주: 광신교육원(가폭)  
※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규정(법 제15조, 규칙 제16조)에 따라 환불조치하며, 2회 이상 수강이후 취소할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 교육생이 30명이 이상 모집되어야 개강이 가능하며, 미실시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 교육특전 및 혜택

- 1 교육훈련 교과목 중 이수하여야 할 이수율 총 시간의 90% 이상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수료증과 가정폭력상담원 자격증 카드를 발급합니다.(출석시간 90% 미만자는 제적처리함.)
- 2 본원의 가정폭력상담원 과정 중 **성폭력상담원 자격 취득 희망시** 별도비용과 추가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1 신청서(소정양식)
-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3 신분증 사본
- 4 사진 2매
- 5 경력증명서(해당자)
- 6 자격증 사본(해당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은 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설치 신고한 교육훈련시설으로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원과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광신대학교 한국가족치유상담교육원**

**hello tv** 가입하시면 **반값!** LG LED TV

42형 LG LED TV 477,400원 (VAT 포함)  
23형 LG LED TV 모니터 253,440원 (VAT 포함)

헬로tv + LG LED TV 상품 안내 (VAT 포함가)

구분	일반 가전매장 일시불 판매가	헬로tv 가입시 일시불 구매가	일시불 구매시 할인율	일반 가전매장 할부 판매가(36개월)	헬로tv 가입시 할부 구매가(36개월)	할부 구매시 할인율
55형 55LN5400	2,600,000원	1,940,400원	25% ↓	3,088,800원	2,431,440원	13% ↓
42형 42LN5400	990,000원	477,400원	52% ↓	1,176,120원	788,040원	26% ↓
27형 27MA53D	360,000원	92,400원	74% ↓	427,680원	364,320원	6% ↓
23형 23MA53D	280,000원	0원	100% ↓	332,640원	253,440원	16% ↓

※주1) 인터넷 결제가입시 ※주2) 할부 구매시 수수료 12% 가산액 포함

가입문의 1588-3450